



대학서열화의 프레임에 갇힌 교수임용

- 이창현 교수의 칼럼을 읽고 -



김 동 훈

· 국민대학교 법대 교수(민법학)

고시계 2014년 12월호에 실린 이창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로스쿨 교수의 임용은 공정한가?』라는 제하의 칼럼을 흥미있게 읽었다. 평소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온 필자로서는 이에 관한 필자의 생각을 개진하고픈 욕구가 생겨 간단히 적어볼까 한다.

이창현 교수가 숫자로 제시한 몇 개의 사례는 필자도 대체적인 경향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순도 100%의 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 답답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다. 독자를 위하여 다시 읊기면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 53명의 출신학부를 보니 자교출신이 42명, 서울대학교 출신이 10명이고, 연세대학교는 46명 중 자교출신이 28명, 서울대학교 출신이 17명, 이화여자대학교는 37명 중 자교출신이 9명, 서울대학교 출신이 27명이다(각 1명씩 외국대학교 출신이 포함되어 있음).

이창현 교수는 이들 대학의 교수들이 교묘히 자기들끼리 뭉치고 철저히 남을 배척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이 분은 실무계에서 오신 분 같고 현재 대한변협 로스쿨 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데, 그러한 입장에서는 더욱 대학과 교수들의 행태가 못마땅 아니 상식이하라고 느낀 것 같다. 그리하여 그는 특하면 남과 사회를 향해 비판적 발언을 쏟아놓는 법대교수들에게서 뻔뻔함의 극치를 느낀다고 한다. 남에 대한 비판보다 먼저 자신의 부끄러움

을 알고 고쳐나가는 인간의 도리를 다하여야 할 것이라는 일갈앞에서는 마치 ‘네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의 티끌을 지적하느냐’는 성서의 말씀까지 떠오른다. 그리고 이런 교수들 때문에 학생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없다는 말까지 덧붙이고 있다.

필자는 이창현 교수가 지적하는 메이저 로스쿨의 교수도 아니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위치에서 자유롭게 이 분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제 제기의 의의는 있겠으나 다소 포인트가 빗나간 주장이 아닐까 한다.

먼저 제목에서도 보듯이 이창현 교수는 묻는다. 과연 위 3개 대학의 교수 임용은 공정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단 한번도 제3의 대학 출신 중에 뽑을만한 사람이 없을 수 있겠는가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질문의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립대학이 교수를 뽑는데 왜 공정성의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가이다. 일반 회사가 사원을 뽑는 경우 임의로 자기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뽑으면 되는 것이지, 회사가 이러한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뽑았다고 남에게 설명할 의무도 없고 밖에서 이를 비판할 권리도 없다. 사람 잘못 뽑으면 손해보는 것은 회사 자신이므로 회사는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위의 대학들도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의 합리적 선택을 한 것뿐이다.

물론 대학은 회사와 다르며 은행처럼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학생들의 교육권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사립대학은 엄격한 면허사업이다. 수시로 감독관청의 감시와 지시를 받고 흑자는 무늬만 사립대학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몇 해전 한 메이저 사립대학이 학생부 환산율을 조작하여 수사에서 특목고 학생들을 대거 선발한 사안을 놓고 심한 사회적 논란이 벌어진 바 있는데, 대학의 학생선발권은 이처럼 공익적 요소를 깊이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학이 교수나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일반회사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정하다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가도 어려운 문제이다. 각 대학은 예컨대 연구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뽑을 수도 있고 강의평판이 좋은 사람, 또는 여성에 한하여 뽑을 수도 있고 또는 모교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뽑을 수도 있다. 즉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때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을 뽑을 자유가 있으며, 부정이나

사기적 행태가 개재되지 않는 한 제3자나 정부가 개입하여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보다 본질적인 것은 위의 3개 대학들, 말그대로 사회의 최고의 지성인 집단이 내린 선택의 누적어떻게 이런 몰상식한 결과로 나타났는가 말이다. 주목할 것은 100% 서울대 및 자교출신을 채용한 위 3개 대학외에도 다른 주요대학들에서도 약간의 제3의 대학출신이 있을 뿐 기본기조는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필자는 성균관대학교 로스쿨의 경우도 궁금해서 이창현 교수와 똑같이 전수조사를 하여 보았는데, 40명의 한국인 전임교수 중 성균관대학교 출신이 18명, 서울대학교 출신이 18명, 기타(미표시 포함)가 4명이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사립대학교에서 대개 40% 안팎으로 자교출신을 확보하고 서울대학교를 정점으로 한 대학서열의 순서에 따라 타대학출신의 교수를 고용하고 있다.

이상의 대학들의 예를 통하여 서울의 주요 로스쿨이나 대학의 교수임용의 경향을 분석하면 몇 가지 원칙을 찾아낼 수 있겠다.

1. 서울대학교 출신 브랜드는 만능키와 같아서 항상 우선순위로 고려대상이 된다.
2. 사립대학은 안정적 비율의 모교출신교수를 확보하여 주도권을 유지하고자 한다.
3. 각 대학은 자기 대학보다 대학서열이 낮다고 평가되는 대학 출신은 교수로 임용하지 않는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립대학에서 이른바 동문교수의 의미에 대하여서다. 한국의 대학문화에서 동문교수는 단순한 교수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들은 학생들에게는 교수 이전에 선배님이며 대학당국으로서의 모교를 위하여는 어떠한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 충성그룹이다. 많은 사립대학들에서는 안정적 지분의 동문교수가 확보되어야 대학이 이른바 주인있는 대학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주인의식이 지나쳐 많은 대학들에서 동문교수와 비동문교수간의 갈등이 자주 불거지곤 한다. 물론 이를 동종교배니 하면서 비판하기는 쉽지만 사립대학의 역사가 일천하여 아직 대학의 공공성보다는 강력한 오너십에 기반한 성장이라는 가치가 지배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웬만큼 자부심있

는 사립대학이라면 자교출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울대출신이라는 마패도 없는 제3대학 출신을 뽑을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이다.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 대학 교수임용의 메카니즘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출신학부를 기준으로 한 대학서열구조다. 낫뜨거움을 무릅쓰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고려대학교가 서울대학교 이외의 타대학 출신을 뽑지 못하는 것은 서울대학교 이외에는 자신보다 나은 서열의 대학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건 연세대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는 조금 특수한 요소가 있다. 즉 여자대학으로서 자신을 신부에 비유한다면 신랑의 자격으로서는 서열 1위 외에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심리가 있지 않은가 추측해본다.

예전에 술자리에서 법대출신의 고려대학교 총장님과 대화한 일이 기억난다. 이런저런 얘기 끝에 나는 고려대학교에서 연세대학교 출신 한 명 뽑아주지 못하냐고 물었다. 총장께서는 답답한 일이라고 하면서 연세대학교와 바터제로 서로 한두명씩이라도 뽑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한 말씀이 기억난다. 일반인에게는 치졸한 자존심싸움으로 비칠 수 있겠지만, 일단 그러한 문화와 관행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개인이나 조직의 의지만으로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의식과 선택을 지배하여 불합리로 몰아가고 사회의 건강을 심히 해치는 파벌과 정체를 만들어내는 대학서열구조의 폐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해오고 있다. 나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대표적 보수신문인 조선일보의 한 칼럼을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 양상훈 논설주간은 대학서열화의 저주 이제 끝내자 라는 제목하에 열변을 토하였다 (2014.11.13.자).

우리나라의 입시지옥과 취직지옥은 사람이 자식을 낳겠다는 본능마저 주저하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입시 지옥의 근원은 대학 서열화다. 어느 나라든 좋은 대학이 있다. 그러나 우리처럼 1등부터 끝까지 철저히 서열화된 나라는 없다. 어느 등수 밖의 대학으로 나간 사람들에게 세상은 자기와는 상관없는 그들만의 리그가 된다....우리는 수십년 동안 매년 수십만의 젊은이들을 하찮은 시험성적으로 줄 세우고 ‘너는 안 돼’ 라는 낙인을 찍어 내동댕이쳐왔다. 그것이 업(業)이 되고, 언젠가 보복을 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이다.

대학교수 임용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이러한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의 프레임속에 갇혀있다. 이창현 교수의 주장처럼 이들 대학이나 소속 교수들이 특별히 뻘뻘하거나 속이 좁아서가 아니다. 그렇다고 필자가 이들을 옹호하거나 이러한 현상이 자연스런 것이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러한 틀속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넘어서 사유하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주문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조선후기 노론과 소론 등으로 나누어 싸우다 국력을 소진하였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 지식인들에게 그 틀 밖으로 나와서 사유하고 행동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게 수령절대주의에서 벗어나서 개혁의 길을 가라고 아무리 주문해도 그 틀 안에 갇힌 집권층에게는 역시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가 무너지는 것은 오로지 파국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필자가 너무 비판적인 것인가? 생각건대 학벌주의가 힘을 못쓰게 되려면 가족단위의 많은 희생과 모험적인 투자를 통해 얻게 되는 학벌이라는 것이 마치 조선시대 큰 돈을 내고 산 공명첩과 같이 별로 실속이 없다는 현실의 변화까지 이르러야 하지 않을까. 계속되는 저성장사회에서 학벌브랜드가 심리적 만족 외에 그다지 장래의 보증이 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부모는 노후 리스크를 안으면서까지 사교육에 투자하려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의식의 근거를 서서히 허물게 될 것이다. 불과 일 이십년전만 하더라도 남아선호사상과 그로 인한 불법낙태가 사회문제였는데 이제는 여아선호가 대세인 세상인심을 생각하면 학벌주의의 미래도 그다지 장담할 수는 없지 않을까.

마무리하자면 이창현 교수의 지적처럼 당사자인 대학이나 교수들을 윤리적으로 비난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대학서열화의 프레임 안에 갇힌 당사자들로서는 부득이한 선택일 수도 있고 따라서 그들도 희생자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손놓고 있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잘못된 구조에 갇혀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조금이라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외부 환경의 변화와 맞물릴 때 변화는 앞당겨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창현 교수의 문제제기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